

# CHEMISTRY

NO.1 AJOU MAGAZINE



P. 4

**인터뷰**

교수님&선배님의 인터뷰

P. 11

**소학회 소개**

화학과의 2개의 소학회!

P. 14

**공지사항**

화학과 내 공지사항

P. 16

**소감문**

22학번들의 소감



P. 3

### **인사말**

화학과에 올리는 인사말

P. 4

### **인터뷰**

교수님&선배님의 인터뷰

P. 11

### **소학회 소개**

화학과의 두 개의 소학회!

P. 14

### **공지사항**

화학과 내 공지사항

P. 16

### **소감문**

22학번들의 소감



# 인사말

---

안녕하세요. 화학과 비상대책위원회 22학번입니다. 이 소식지는 현 비상대책위원회 22학번 학우들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을 담아 만든 결과물입니다. 저희의 첫 인사를 소식지를 통해 전달한다는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침체되어 있던 대학 생활이 올해 다시 가동되었습니다. 그러한 만큼 학교 전체의 소식보다는 학과 내의 소식에 집중해 내용을 구상했습니다. 소식지를 통해 학과 내 새로운 소식과 활동들을 접하며 우리 과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인터뷰

## 교수님&선배님

---

2022년 화학과 소식지의 첫 번째 콘텐츠로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교수님 두 분과 선배님 두 분의 인터뷰 내용을 담았습니다. 교수님의 인터뷰 내용에는 교수님의 은사님과 있었던 에피소드, 교수님이 되시기 전 기업에서 겪으셨던 일들 등 수업시간에 듣긴 어려웠던 이야기들 또한 담겨있습니다.

선배님들의 인터뷰는 창업과 인턴에 관한 내용입니다. 화학과를 통해 다양한 방향으로 나아가시는 선배님들의 이야기, 쉽게 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담아봤으니 흥미롭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혜영 교수님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아주대 화학과에 2006년부터 근무했고 벌써 15년이 넘었네요. 제가 다닌 학교 중에서는 가장 오래 다닌 학교로 우리 학교라는 말이 저에게는 이제 '아주대학교'를 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공은 유기화학과 유기금속화학입니다.

Q. 연구분야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원래 유기화학과 유기금속화학의 촉매를 연구하는 사람이라 촉매를 이용한 화학반응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약 10년 전부터 화학자들과 화학 공학자들이 기후 위기와 관련한 이슈를 점차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산화탄소를 화학적으로 전환하는 기술을 연구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주로 화석연료 기반인 화학산업을 이산화탄소나 바이오매스(biomass)로 전환할 수 있는 촉매에 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Q. 교수님께서 연구하시는 분야에서 가장 핫한 주제가 있나요?

A. 탄소중립이 가장 떠오르는 것 같아요. 사실 산업혁명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은 있었죠. 동물이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것을 식물이 포집시키고 이후에 식물이 죽으면 다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등의 방식으로 지구 내에서 자연스럽게 탄소순환 사이클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더 이상 자연스러운 순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양이 됐죠. 우리가 이산화탄소의 양을 인위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모든 공장을 셧다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사이클 대비 추가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없게 만들겠다는 것이 탄소중립이에요. 이것을 우리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안 하게 되면 수출에 있어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렇기에 많은 기업과 국가들이 탄소중립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Q.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연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 혹은 가치는 무엇인가요?

A. 제가 요즘 학생들에게 많이 하는 얘기이기도 한데, 영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에서 나오는 대사 중 하나입니다. 영화에서 '어떤 아이들이 수학을 잘하는가'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문제가 잘 안 풀리고 증명도 잘 안되는 상황에서 우울하고 절망감을 가지더라도 내일 다시 이 문제를 도전할 용기를 가진 사람이 수학을 잘한다는 답변이 나옵니다. 연구도 똑같습니다. 연구를 10번 해서 1번 성공하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실패하는 실험을 하다 보면 기분이 다운되고 우울해집니다. 실험의 실패를 많이 안 해본 사람은 그때 손을 놓게 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내일 다시 한번 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음 날에 학술 검색도 해보고 다른 분야의 논문도 읽어보고 하면서 다시 시작해 보는 겁니다. 이러한 실패에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오뎅이 같은 꾸준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교수님께서 해외에서 박사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힘든 점은 있으셨나요? 있으셨다면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A. 제가 2000년에 석사 학위를 받았을 때 당시에 지도 교수님께서 우리나라에서 여자 박사는 취업이 안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박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유학 가서 힘들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학위를 따라겠다는 확고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위를 받은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나의 커리어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터널 같았던 이 고민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Q. 최근 교수님의 은사님께서 노벨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사님과 있었던 일화 혹은 가장 기억에 남는 은사님의 가르침은 무엇인가요?

A. 제 지도 교수님이셨던 분은 골프를 취미로 즐기셨어요. 그리고 한국 음식을 좋아하셨습니다. 지난 5월에 한국에 오셨을 때도 맛집 찾아다니시기도 하셨어요. 생각보다 평범하시죠. 노벨상 수상자라고 하면 늘 학문적이시고 항상 연구에 대한 고민만 하실 것 같은데 그러진 않으셨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은 다르실 수도 있고요. 제가 Postdoc로 있을 때 교수님이 제게 어려운 과제를 하나 주셨습니다.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하시면서요. 그 과제를 정말 오만가지 생각을 하고 여러 방식을 써보면서 결국 몇 달 만에 해냈습니다. 그렇게 해냈다고 교수님께 말씀드리니 그럴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더 어려운 과제를 주시고 이것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계속할 수 있다고 말해주시고 믿음을 주시니 결과를 내기 위해 더 노력하고 제 역량도 기를 수 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Q. 끝으로 학생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A. 후회가 남지 않는 삶을 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삶. 지나온 시간동안 겪었던 세상은 생각보다 작은 세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좀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해보기도 하고 단기적,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후회되는 과거보다는 만들 수 있는 미래에 집중하도록 말이죠.

# 이태권 교수님



Q. 교수님에 대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화학을 좋아했습니다. 고려대 화학과에 입학해서 고려대에서 석사, 박사학위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Johns Hopkins University에서 재료공학과로 Postdoc을 3년 정도 하고 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Postdoc을 1년 반 정도 지냈죠. 이렇게 미국에서 박사 후 연구원 과정을 마치고 삼성 정밀화학, 삼성 디스플레이라는 삼성 그룹의 두 개의 계열사에서 다녔습니다. 이후에는 벤처도 다니고 아주대 강사도 하다가 2019년부터 아주대 화학실험을 총괄하는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Q. 교수님께서 연구하시는 연구분야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원래 석사 과정일 때는 유기금속화학을 했습니다. 박사 과정 때 OLED라고 하는 물질을 합성하는 것을 했는데 잘 안됐습니다. 그 때 삼성 sdi의 그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RGB 중에서 Blue, 파란색 인광물질은 합성도 잘 안되고 어려운 건데 쉽게 되는 줄 알고 시도했다가 잘 안됐습니다.

오히려 녹색이 나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잘 안되다가 새로 시도한 유기물로 된 형광물질의 합성은 잘 됐어요. 의도한 방향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그 방향으로 논문을 내고 점차 논문이 쌓이면서 미국에 Post doc을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Postdoc 때 트랜지스터를 유기화학으로 하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한국에 와서는 무기물 반도체를 연구했습니다. 지금은 cnt 반도체에 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Q. 교수님께서 연구하시는 분야에서 요즘 언급되는 주제가 있을까요?

A. 우선 cnt가 있습니다. 기존에 반도체에 쓰이는 실리콘은 어찌 보면 유리 같은 소재이기에 구부리면 깨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플렉시블하고 폴더벌한 기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소재에 유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머리카락 같은 cnt가 트랜지스터 역할을 해주면 구부려도 괜찮아집니다. 또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나 웨어러블 디스플레이에 소재들의 유연성이 필요해요. 그럴 때 유기물 반도체나 유기물 절연체 혹은 cnt 반도체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안전과 관련된 헬스케어도 좀 말 그대로 핫(hot) 합니다. 진단 키트와 같이 반도체로 센서를 만들고 일회용처럼 버리는 것처럼 편리하게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쪽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Q.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연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 혹은 가치관은 무엇인가요?

A. 항상 수업시간에도 얘기하지만 관찰, 해석, 적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설을 잘 세우고 실험을 할 때 실험에 신경 쓰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보면 그 사이에 실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게 됩니다. 갑자기 용매가 끓다가 멈춘다거나 잠깐 전기가 나갔다 들어오는 것 같은 여러 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놓치고 실험을 실패하면 '이 반응은 안되는 반응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죠. 그렇기에 위 3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더불어서 '끈기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긴 실험을 관찰할 수 있는 끈기, 실패한 실험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러한 끈기와 노력이 중요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Q. 기업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기업에서 근무하시면서 힘들셨던 일이 있으셨나요?**

A. 우선, 처음에 갔던 회사에서 제가 프로젝트를 선정해서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회사가 이 기술을 가지고 코어 기술을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인드로 남들이 흔히 하는 것이 아닌 조금 더 멀리 보고 하는 과제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단기간에 많은 결과를 얻는 것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선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기 보다는 벤처를 사는 것이 낫다는 거였죠. 저는 기술을 차곡차곡 다져가는 것이 회사를 위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회사의 목적과는 달랐습니다. 이런 안 맞았던 점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금방 퇴직하게 됐고 이후에 벤처기업으로 가게 됐습니다. 벤처를 다니면서 일주일에 두 번씩 아주대 강사를 하면서 아주대와 인연이 돼서 아주대로 오게 됐습니다.

**Q. 앞으로 교수님께서 이루고 싶으신 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A. 저는 학생들을 잘 가르치면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잘 신경쓰고 체력적으로 관리하면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도 소소하게 하면서 정말 누군가에게 유익한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또한 만약에 북한과 교류가 돼서 북한의 학생들을 가르칠 기회가 생긴다면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Q. 끝으로 학생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A. 학생들이 시험도 자주 있고 어렵다 보니 항상 쉴틈 없어 보입니다. 학점 관리, 영어 시험 준비 등 열심히 바쁘게 사는 것도 좋지만 좀 더 다양한 경험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나이키의 'Just Do It'같은 자신만의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 최현진 선배님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아로마캠의 대표이자 연구원인 최현진입니다.

Q. 화학과를 선택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A. 제가 학생일 때 조향사라는 직업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당시엔 굉장히 생소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영화 <향수>를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동시에 두 가지를 같이 접하게 되니까 보이지 않는 기체 분자가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한 번 해보고 싶고 이 방향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해서 화학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Q. 회사를 설립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A. 저는 사람들이 향기를 통해서 마음이 편해지고 좋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조향사는 꿈을 가지게 된 것 또한 그러한 생각이 계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실현할 수 있는 기업을 한 번 꾸려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건강한 향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자는 비전을 가지고 설립하게 됐습니다.

Q. 회사에서는 어떤 인재를 기다리고 영입하길 원하는지 궁금합니다.

A.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체적으로 알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혁신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 회사와 가고자 하는 비전과 본인이 원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서로 합이 잘 맞아서 서로 시너지가 나는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인재를 영입하고 싶습니다.

Q. 시장에서 회사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소품종 대량 생산이 지배적인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싼 브랜드의 향기가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다른 회사들이 이를 쫓아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추구하는 건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상품의 고유성을 지키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희 회사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Q. 회사 운영에 있어서 가장 어려우셨던 일은 무엇인가요?

A. 회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다 보니 제가 할 역할이 너무 많다는 부분이 조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원 생활을 할 때는 연구에만 집중하면 됐지만 이젠 제가 할 일이 더욱 많아진 거죠. 상품을 만들어서 어떻게 유통시장에 연결하고,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인가, 그리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와 같은 운영을 혼자 해나가는 부분이 아직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Q. 끝으로 후배들에게 조언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A. 화학이라는 학문이 굉장히 근시안적인 학문이잖아요. 실험을 할수록 그렇게 느끼게 될 텐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하면서 계속해서 파고들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 속에 갇힐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사회에 발돋움하기 전에 사고의 틀을 확립해나가는 시기에 계속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틀 외적인 부분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것을 경험하고 느끼면 좋겠습니다.

# 손준희 선배님



Q.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화학과 4학년 손준희입니다. 졸업 후에 진로에 대해 고민하면서 저희가 배운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산업에 쓰일지 궁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학 특수연구 과목을 통해서 학부생 연구원으로 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전자재료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마침 좋은 기회가 생겨서 올해 한국 BASF 연구소에서 6개월동안 인턴을 하고 왔습니다.

Q. 화학과를 선택하신 계기가 무엇인가요?

A. 우선 저는 화학이 물질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질이 전혀 다른 형태의 에너지나 물질로 바꾸고 조건에 따라 반응속도가 바뀌는 것에 크게 흥미를 느껴서 화학과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Q. 인턴을 준비할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어느 것인지 궁금합니다.

A. 흔히 알고있는 어학성적, 자격증 외에도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독특한 능력 혹은 경험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잘 해낼 수 있을지를 많이 보기 때문에 성실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도적인 측면과 함께 인턴에 대한 관심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학부연구생이 되게 좋은 경험이 되고 인턴을 지원할 때 어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Q. 선배님께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여쭙볼 수 있을까요?

A. 취직할 때도 마찬가지로 저는 자기소개서 작성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더 이상 없었고 인턴 활동 중 어려웠던 걸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이 어렵게 다가왔습니다. 사실 화학과에서 이런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의 의견을 발표하는 부분이 조금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Q. 회사에서 맡으셨던 일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반도체 공정에서 박막 공정과 패키징 혹은 배선 공정에서 사용되는 금속을 습식으로 증착시킬 때 필요한 첨가제 물질을 개발하는 팀에 있었습니다. 특히 구리를 전기 도금으로 증착시킬 때 전극으로부터 거리가 다르더라도 같은 속도로 증착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기물질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Q. 선배님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A. 화학회사에서 이뤄지는 의사결정과정 혹은 제품화되는 과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반도체 산업의 흐름과 키워드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여러 분석 장비와 전기화학에 대한 지식을 깊게 배울 수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의 진로를 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Q. 후배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A. 저의 화학과 친구들이나 동기들을 보면 취업에 대한 생각을 좀 닫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화학이 산업 전반의 기초가 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충분히 전공을 살려 취업에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원 진학을 필수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엔지니어로서도 충분히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소학회 소개

## Alchemy&Covalent

---

소식지의 두 번째 콘텐츠로 화학과 소속의 두 개의 소학회 소개를 준비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소학회 활동이 코로나의 기세가 줄어든 지금 다시 시작됐습니다. Alchemy(알케미)와 Covalent(코블란트) 두 개의 소학회의 정보와 올해 활동 내용을 적어두었습니다. 화학과 소속의 소학회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Alchemy

## 화학과 소속 소학회

2022 년도 지도교수: 김유권

2022년도 소학회 회장: 임종령

\* 간단한 소학회 소개

-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중지했던 Alchemy가 2022년에 다시 시작합니다. 화학과내 소학회기 때문에 화학에 대해 심도있는 활동을 하는 소학회입니다.

\* 활동목표

- 기초와 응용관점에서 화학을 좀 더 열심히 연구하는 소학회이기 때문에 부원 각자의 화학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을 주로 진행합니다. 우선 처음에는 본인의 전공을 결정하고, 직접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앞으로의 활동을 진행합니다.



\* 주요 활동계획

- 자신의 적성에 맞는 화학 분야 찾기

본인의 적성에 맞는 전공을 찾아낸다면, 1학년때부터 본인의 스펙을 차곡차곡 진로에 맞게 쌓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우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 세미나 진행

국내 또는 세계적인 화학 사이트와 1년에 약 5~6회 발행되는 화학연구회에서 오는 잡지를 바탕으로 본인의 관심분야를 읽고, 더 찾아보면서 발표를 진행해서 본인 관심 분야에 더욱 많은 지식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 그룹스터디

그룹스터디를 진행해서 학기 중에 배우는 화학관련 과목을 함께 학습하면서 서로의 빈 부분을 매꾸어주는 스터디를 진행합니다. 화학과 학생들이기 때문에 화학에 대해 더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모여서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며 스터디를 진행한다면 효율이 더욱 올라가서 학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룹스터디 활동을 하겠습니다.

- 실험 진행

이제 본인의 전공분야에 대해서 어느정도 감이 생긴다면, 관심분야가 같은 부원끼리 조를 이루어 실험을 계획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토론이 진행 될 것이고, 과연 의미가 있는 실험일까 고민을 해본다음에, 직접 진행하게 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프로그램 중 하나인 링크를 통해서 조를 이루어서 학교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실험을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자신과 관심분야가 같은 부원과 함께 한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학술제 및 공모전참가

학술제를 하게 된다면 부스를 운영하여 간단하게 화학실험 중 신기한 것을 보여줄 수 있고, 화학적 원리를 이용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발표형 학술제 같은 경우는 1년동안 소학회 활동한 것들을 토대로 발표를 진행해서 학술제에 참가할 것입니다. 실험을 하고 토론을 하다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다면 교수님과 함께 공모전을 준비해서 상을 딸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 Covalent

## 화학과 소속 소학회

2022 년도 지도교수: 장혜영

2022년도 소학회 회장: 이상우

### \* 간단한 소학회 소개

- 개인의 미래를 스스로 꾸며나갈 발판과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화학과 소속의 소학회입니다.

### \* 활동목표

- Covalent 소학회는 화학과 소속의 진로탐색을 위한 소학회입니다. 졸업하신 선배님들과의 만남, 기업 현장방문, 기업&연구소 등 취업정보를 소개)등 활동을 가지면서 화학과를 거쳐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방향성을 정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소학회입니다.

### \* 주요 활동계획

- 활동 타임라인 설정

본격적인 활동 시작 전에 소학회 회원들이 얻고자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참고하고자 활동 타임라인을 정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 선배님과 토크타임

졸업 혹은 대학원에 진학하신 선배님들을 초청하여 강의를 부탁드립니다. 강의의 내용은 소학회 내부에서 논의한 후 선배님께 부탁드립니다. 강연 이후에는 QnA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진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집니다.

- 현장탐방

기업체 혹은 연구소에 사전에 문의하여 현장탐방을 진행합니다. 이 일정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다른 활동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공지사항

## Notice

---

소식지 세 번째 콘텐츠는 새로 보수한 과방에 대한 사용과 화학인의 밤에 대한 공지사항입니다. 과방을 새로 보수하고 수리한 만큼 사용 규칙을 잘 숙지하여 사용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몇 년만에 개최하는 화학인의 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화학과 과방 공지 사항

이번 여름 과방 보수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보수 공사를 진행한 만큼 사용 규칙을 지켜 사용해주시길 바라며 자세한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방에 출입하면 반드시 방명록 작성하기
2. 사용 후 퇴실 시 뒷정리 꼭 하고 가기
3. 사용한 과방 물품은 모두 제자리에 두기
4. 과방 물품을 가져가거나 훼손하지 말기
5. 지나친 소음 금지
6. 음주 및 흡연 금지
7. 타 학과 사용 금지

과방의 위치는 원천관 114호이며 추가적인 건의사항은 과방에 설치된 칠판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화학인의 밤

화학인의 밤이 이번 년도 11월 4일에 개최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장소는 성호관 소극장에서 오후 5시에 시작합니다. 화학인의 밤의 규칙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스 사용 수칙

- 1.차례를 지키는 아주 화학인이 됩시다!
- 2.부스나 천막을 고정하는 구조물이 많으니 발 밑을 조심하세요!
- 3.부스 운영 시 부스운영자의 안내를 잘 따라주세요!
- 4.체험 시, 분실물을 습득하면 주변의 스태프에게 전달해주세요!
- 5.선 후배 간 상호 배려는 선택이 아닌 필수!
- 6.마지막으로, 즐거운 행사로 기억될 수 있도록 열심히 즐겨봐요!

### <화학인의 밤 수칙>

1. 흡연은 금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지양해주세요.
2. 소지품을 주의하세요. 자기 물건은 자기가 알아서 챙길 것!
3. 발밑을 조심하세요. 설치된 구조물이나 턱이 있을 수 있으니 폰을 보면서 걸을 땐 조심하셔야 합니다.
4.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기!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의 음식물 쓰레기통에 배출하고, 액체류를 풀숲이나 바닥에 버리지 않습니다.
5. 자신의 주량을 알고 과도한 음주는 하지 않기!
6. 행사 진행 중 스태프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주세요!
7. 선 후배 간의 상호 존중은 필수!
8. 자신의 안전은 자신 스스로 지킨다는 생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아주 화학인이 됩시다!



# 소감문

## appreciations

---

소식지의 마지막 콘텐츠는 소식지를 제작에 참여한 22학번 학우들의 소감문입니다. 소식지를 만들며 다음 년도에 입학하실 학우분들과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화학과 학생들에게 현재 화학과의 소식을 알리고 활동들에 대한 흥미를 돋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제작될 화학과 소식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22학번 과대표 이상우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과 22학번 과대표 이상우입니다. 어느덧 새내기였던 저도 선배의 위치를 준비를 생각해야 하는 2022년의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적응하기 정신없고 늘 열정만 앞서기에 1학기가 눈 깜짝할 새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정신없는 한 학기였지만 그 어느 시간보다 배운 것, 느낀 것이 많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멈췄던 대학 행사들이 다시 시작되고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식지는 화학과 비상대책위원회 22학번들이 화학과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모두 오랫동안 디자인과 내용, 구성 등 모든 부분을 고민하며 열심히 제작한 결과물이니 부디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은 2022년을 과대표로서,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어질 대학 생활을 잘 부탁드립니다.

## 22학번 부과대표 최혜림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과 22학번 부과대표 최혜림입니다. 아주대학교 캠퍼스가 아직 낯설고 '교수님'보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더 익숙한 적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2022년의 가을이 왔네요.

코로나가 조금씩 사그라져 갈 때 우리가 만나 대학 생활을 재밌게 즐기는 거 같아서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번년도 동안 비상대책위원회와 부과대표로 활동하면서 화학과를 위해 활동하고 도움이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많이 뿌듯했고 저 스스로에게 더 다채로운 경험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족 같은 우리 화학과를 응원하고 지지하면서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 22학번 부과대표 윤홍빈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과 22학번 부과대표 윤홍빈입니다. 아주대학교에 들어와 동기들과 선배님들을 뵈었던 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1학기가 지나 2학기도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신없이 지나간 1학기였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즐거웠던 한 학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즐거웠던 한 학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소식지가 화학과 비상대책위원회 22학번이 화학과 학우분들께 처음 소개되는 자리이다 보니 구성부터 디자인까지 모두가 꽤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열심히 제작하였습니다. 저희 모두 이러한 작업이 처음이라 서툴 수 있지만, 화학과 학우분들을 생각하며 열심히 제작하였으니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화학과 비상대책위원회, 22학번 부과대표로서 잘 부탁드립니다.

## 22학번 비상대책위원회 부원 김세진

안녕하세요 학우 여러분 저는 2022학년도 화학과 비상대책위원회 부원 김세진입니다. 소식지에 들어갈 인터뷰를 위해 선배님, 교수님과 인터뷰 하기 전 무척 긴장하고 걱정했었는데 막상 시작하니 너무 즐겁고 유쾌한 분위기여서 신기했습니다. 인터뷰가 두 분과 함께 자리했던 비대위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학년 비대위 모두 소식지 만드느라 너무 수고많으셨어요~!!

## 22학번 비상대책위원회 부원 고다경

안녕하세요 저는 2022학년도 화학과 비상대책위원회의 기획부를 맡은 22학번 고다경입니다. 먼저, 화학과 소식지를 만든 1학년 과 대표 이상우 학우에게 깊은 감사를 표현합니다.

약 1년의 세월 동안 화학과를 위해 일할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내년 신입생들도 학과행사에 많은 참여를 하여 뜻깊은 학교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편집 및 기획

22학번 이상우 22학번 윤홍빈 22학번 최혜림 22학번 고다경 22학번 김세진